

가르치는 교회▪전파하는 교회▪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11월 16일(주일)
감사주일

11월 19(수) - 21일(금)
청년 코스타

11월 26일(수)
교육부서 수요모임 '토브' 종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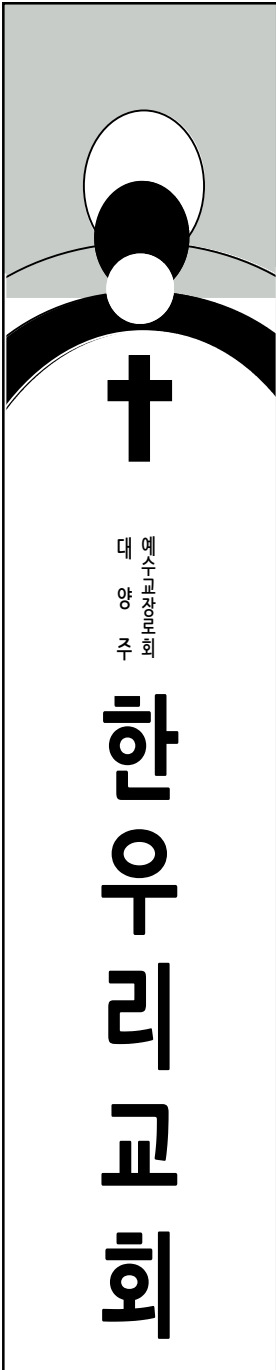
12월 6일(토)
새싹학교 발표회

12월 7일(주일)
정기 제직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최영두 2부/이요한 3부/이성민 4부/이효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다 함 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 봉헌 및 1부/ 이명란 권사 2부/ 이강용 장로 3부/ 신규식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요엘 2:12-13 사 회 자
- 찬 양 2부: 주 너를 지키리 시온찬양대
3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씀 새 삶을 여는 하나님의 로드맵 6 남우택 목사
하나님께 돌아오라
- 찬 양 주 품에 다 함 께
주기도문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한 정 문
대표기도
- 찬 양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씀 마 13:47-50 [하늘나라의 비밀 7] 김진영 목사
물고기를 잡는 그물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손보영 장로 2부/ 고현숙 권사 3부/ 조종면 장로 4부/ 형지원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시에라리온
단기선교보고

말씀: 마 28:18-20

제목: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다

기도: 박진석 집사 (다음 주 기도: 청년코스타)

설교: 최영두 목사

교 회 소 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 수요일예배(12일)시 시에라리온
단기선교팀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16일)은 감사주일 입니다.
한해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절 온라인 헌금 코드는
'11 Thanks G'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11/12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8. 2026년 복있는 사람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OSTA NZ

- 주제: Here I stand Holy Ground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출 3:5)
- 날짜: 11월 19(수) - 21일(금)
- 장소: 한우리 교회

"헨델 메시아" 제8회 연주회

- 날짜: 11월 22일(토), 저녁 7시
- 장소: 파넬대성당(HolyTrinity Cathedral)

교육부서

- 교육부서 수요일모임 '토브' 2025년도 종업식:
11월 26일(수) 저녁 7시, 본당
- '토브키즈' 연합 올림픽:
11월 19일(수) 저녁 7시 바울홀
- 비전시니어(Y11-Y13): 교사모집
자격: 제자반 수료 이상
문의: 오 훈 책임교사 021 0285 9399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 안내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가 12월 21일(주일)에
있습니다.

- 교육일정: 12월 6일, 13일, 20일(토)
1시 - 3시 조아홀
- 문답: 12월 20일(토) 1시 사랑부실
- 입교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을
미리 하시고, 세례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 또는 한우리교회 유튜브채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총 9강을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HanouriTV>)
-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오후 3시에 타카푸나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시작합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1	09	바나마 / 바누아투 푸른
	16	블라디보스톡 / 헤세드
	23	누쿠알로파 / 수단로고스

교우동정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품에

Intro A2 C#m7 E/B 1. Bsus4 B 2. B

Verse E B/D# C#m7 AM7 F#/A# Bsus4 B

1. 주 품 - 에 - 품 으 소 - 서 -
님 안 - 에 - 나 거 하 - 리 -

11 E/G# AM7 E/G# F#m7 Bsus4

능 력 - 의 - 팔 로 덮 으 - 소 서 -
주 능 - 력 - 나 잠 잠 히 - 믿 네 -

Chorus E/G# (E/G#) A A/B E E/G# A G#/B# C#m7

거 친 파 도 날 향 해 - 와 도 - 주 와 함 께 날 아 오 - 르 리 -

20 C#m7/B A A/B Esus4 B/D# A A6/B 1. E A/B 2. E

폭 풍 가 운 데 나 의 - 영 혼 - 잠 잠 하 게 - 주 보 - 리 라 - 2. 주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 람 데 오	1 로DEM	김승기	21575899	온 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김지석	0210302829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무 지 개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효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임 마 누 엘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윗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약 속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성 결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우 리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민 음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참 빛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성 결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벨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34 섬나 호치민	나종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베에셀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ell	심정임	2102386602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민음	성결	김진영



우리의 삶여정에 무엇에 꼬여 어두울 때 어떻게 새 삶을 열어갈까요?
요엘선지당시 이스라엘백성들의 삶 역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길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1. 요엘 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2. 이 당시 백성들의 상황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진정한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4. 회개는 누가,무엇을 해야하는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누가 이 회개가 필요합니까?
5.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나 자신이 특별히 깨달은 것 한가지(교훈, 명령, 해야할
일..)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인도네시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응갈릭 부족 50년 만에 성경 완역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소수 부족 ‘응갈릭(Ngalik)’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의 언어 ‘실리모(Silimo)’로 된 첫 완역 성경을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세대와 대륙을 넘어 이어진 선교사들의 헌신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사역은 1960년 미국 선교사 에드와 셸리 맥시 부부가 응갈릭족과 처음 접촉하면서 시작됐고, 그 아들이 다. 약 8,500명 규모의 미전도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 실리모(Silimo)로 된 성경을 전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파푸아는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이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이슬람이 다수를 이루며, 지역 내 갈등과 인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응갈릭족의 성경 완역은 희망의 이야기로 남는다. 실리모 계곡의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설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파푸아에는 278개 언어가 존재하지만 완전한 성경을 가진 언어는 10개뿐이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한국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교계,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 강력 반대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인구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의 관계를 ‘배우자’로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성 간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차별 논란 해소’를 이유로, 동성 간 가구주 관계 입력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기독교계는 “헌법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정 월권이자 사실상 동성혼 제도화의 첫 단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이승구)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상 배우자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윤리감과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외국에서도 행정상 인정이 법제화의 전단계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동성혼 합법화 논의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인도네시아] 세대와 대륙을 넘어 헌신으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